

간호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혜정

목포과학대학교, 조교수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Hye Jeong, Kim

Department of Nursing, Mokpo Scienc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5권 제4호 2021년 12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5, No. 4, December. 2021

간호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혜정

목포과학대학교, 조교수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Hye Jeong, Kim

Department of Nursing, Mokpo Scienc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among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resilie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tress.

Methods : This study targeted 230 third-year and fourth-year nursing students in M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5th to November 9th, 2020, and for data analysis, real numbers, percentages, standard deviation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measured and conducted using the SPSS WIN 23.0 program. **Results** :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r = .25, p < .001$),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resilience ($r = -.13, p = .044$), an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resilience ($r = -.13, p = .048$).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had the biggest influ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followed b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10.7%.

Conclusion : To reduce clinical practice stress, which cause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to restore their well-being by considering nursing student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counseling intervention and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for improving the nursing students' resilience during extracurricular programs.

Key words : Nursing student,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Resili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ractic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이전까지와는 다른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시험 성적 및 학점관리, 스펙 쌓기, 교우관계 형성 및 이성교제 등의 많은 과업들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1]. 특히 간호대학생은 이론교육과 임상실습 통합교육으로 간호 실무를 습득하는데, 임상실습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임상실습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 낯선 임상 환경에서 환자와 보호자와의 대인 관계,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2,3]. 이러한 스트레스는 일반학과 대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4], 스트레스상황이 지속될 경우 피로, 불안, 우울 등이 유발되고, 임상실습에 부적응하여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켜 간호를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5,6]. 임상실습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나 전공에 대한 회의감으로 작용하여 자퇴나 휴학 등 대학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7,8]. 이에 간호전문직에 종사하게 될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교육기관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전략과 관리가 필요하다.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회복탄력성을 들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는 능력,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하는 능력,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내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능력이다[9,10].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임상실습수행능력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1,12]. 따라서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임상실습 수행을 위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중

요하다.

완벽주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행을 자신 혹은 타인에게 요구하는 성향으로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며 타인과 비교할 때 탁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를 지닌다[13,14]. 간호대학생은 전문직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배우면서 환자에 대한 책임감 뿐만 아니라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완벽한 간호업무 수행을 인식하면서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경우가 요구되고 있다[15]. 1990년대 다차원적인 완벽주의의 세부 영역이 확대되면서 완벽주의적 행동의 대상이 누구인가 혹은 완벽주의적 행동이 누구에게 귀인 되는가에 따라 세 차원으로 나누어지며,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부와 완벽주의로 분류한다[16]. 그 중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자기 주변의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거부당할 것이라는 신념과 지각을 반영하여 심리적인 부적응과 관련성을 보여왔다[17].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소진[18], 시험불안[19], 진로스트레스[20]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상황에서 제시된 평가기준에 도달해야지만 본인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되어 가장 일관된 설명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스트레스간의 관계 연구가 부족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대학생으로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분류에서 구분된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사회부와 완벽주의

와 회복탄력성 및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M시에 소재한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독립변수 6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표본크기가 최소한 146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최종 23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사회부과 완벽주의

Hewitt 등[16]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Han[21]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7점 척도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Kim[22]의 연구에서 설문지의 구성과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15문항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만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Kim[22]의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Cronbach's $\alpha = .6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2$ 로 나타났다.

2) 회복탄력성

Yang 등[23]이 문헌고찰 및 간호 대학생과의 면담과 설문을 통해 개발하고 타당도를 분석한 회복탄력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7개 하위영역 24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자신감 요인 3문항, 관계성 요인 4문항, 긍정성 요인 4문항, 대처능력 요인 2문항, 사회적지지 요인 4문항, 감정조절능력 요인 4문항, 조직적 스타일 요인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Yang 등[2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5$ 이었다.

3) 임상실습스트레스

Beck 등[24]이 개발하고 Kim 등[3]이 변안한 임상실습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실습교육 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6문항, 실습업무 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71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10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M시에 소재한 대학교 간호학과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연구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 종료 후 자료는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소요시간은 10분 정도 걸렸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부과 완벽주의, 회복탄력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스트레스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여성이 188명(81.7%)으로 더 많았고, 평균 연령은 25.4 ± 6.42 세로 20~30세가 195명(84.8%)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3학년 148명(64.3%), 4학년 82명(35.7%)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54명(67%)이었다. 임상실습만족도는 보통이 116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성적은 중수준이 95명(41.3%)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2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Female	188(81.7)
	Male	42(18.3)
Age(year)	Average	25.4 ± 6.42
	20~30 ^a	195(84.8)
	31~40 ^b	23(10.0)
	$\geq 41^c$	12(5.2)
Grade	3	148(64.3)
	4	82(35.7)
Religion	Yes	76(33.0)
	No	154(67.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64(27.8)
	Average	116(50.4)
	Dissatisfaction	50(21.8)
Perceived academic score	High	58(25.2)
	Middle	95(41.3)
	Low	77(33.5)

2. 대상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69 ± 0.46 점이었고, 회복탄력성 평균은 5점 만점에 3.24 ± 0.42 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임상실습스트레스 평균은 5점 만점에 3.30 ± 0.40 점이었다(Table 2).

Table 2. The Degrees of the Subject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Resilie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N = 230)

Variables	Min	Max	M \pm SD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1.56	4.56	2.69 ± 0.46
Resilience	1.92	4.54	3.24 ± 0.42
Clinical practice stress	2.00	4.46	3.30 ± 0.4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스트레스는 학년($t=2.64, p=.009$), 임상실습만족도($F=4.15, p=.01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서는 3학년보다 4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실습에 ‘불만족’ 군이 ‘보통’군과 ‘만족’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대상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회복탄력성, 임상실

습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사회부과 완벽주의($r=.25,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회복탄력성($r=-.13, p=.044$)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회복탄력성($r=-.13, p=.048$)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4.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임상실습만족도를 더미변수로 처리하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회복탄력성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중 공차한계는 0.7-1.0

Table 3. Differences in Clinical Practice Stress Depending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230)

Characteristics	Variables	Clinical practice stress	
		M±SD	t/F(p) Scheffé
Gender	Female	3.31±0.40	0.16(.866)
	Male	3.30±0.42	
Age(year)	20~30	3.32±0.40	1.14(.319)
	31~40	3.19±0.37	
	≥41	3.34±0.36	
Grade	3	3.25±0.38	2.64(.009)
	4	3.40±0.42	
Religion	Yes	3.29±0.38	-0.34(.730)
	No	3.31±0.4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	3.21±0.40	4.15(.017) c>b,a
	Average ^b	3.30±0.40	
	Dissatisfaction ^c	3.43±0.38	
Perceived academic score	High	3.34±0.34	1.22(.297)
	Middle	3.32±0.45	
	Low	3.23±0.38	

Table 4. Correlation Among Subject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Resilie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N = 230)

Variable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r(p)$	Resilience $r(p)$	Clinical practice stress $r(p)$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1		
Resilience	-.13(.048)	1	
Clinical practice stress	.25(<.001)	-.13(.044)	1

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1.4로 10미만이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sin-Watson의 값은 1.5로 자기상관이 없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부과 완벽주의($\beta = .23, p < .001$), 임상실습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에 비해 만족하는 경우($\beta = -.23, p = .004$)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총 설명력은 10.7%였다(Table 5).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스트레스 관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5점 만점에 평균 2.69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과 Park[19]의 연구 평균 2.79점과 유사하였고, 대학생 대상 Kwon[25]의 연구 평균 3.71점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3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이 적어 임상현장에서 자신에게 과도하게 부여하는 평가기준을 적게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실습기관별 실습경험 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3.24점으로 Lee 등[11]의 연구 평균 3.50점,

Koong 등[26]의 연구 평균 3.74점, Shin 등[12]의 연구 평균 3.58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사용한 연구도구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과 수업환경에 대한 제한이 임상실습에 영향을 주면서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3.30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oong 등[26]의 연구 평균 3.27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반복되는 실습교육과 열악한 임상실습 공간, 과다한 과제물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므로[3], 임상실습 지도자는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임상교육환경 점검 및 부여되는 과제물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학년, 임상실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학년보다 4학년에서, 임상실습에 대해 불만족한 경우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시기가 취업과 국가고시 등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작용하는 시기이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양의 상관관계, 회복탄력성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임상실습스트레스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논의하는데 제한적이나 유사개념을 다룬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Si[27]의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tress

(N = 230)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3.35	0.27		12.26	<.001
Grande(3rd) [†]	-0.09	0.05	-.11	-1.84	.066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 (moderate)	-0.10	0.06	-.12	-1.58	.116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 (satisfied)	-0.20	0.07	-.23	-2.87	.004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0.20	0.05	.23	3.64	<.001
Resilience	-0.09	0.06	-.10	-1.62	.106

$R^2 = .126$, Adj $R^2 = .107$ ($F = 6.47$, $p < .001$)

[†]Dummy variables : Grande(4rd=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Dissatisfied=0)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의미 있는 타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며 그 기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28].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은 임상현장에서 임상실무자들의 과도한 평가에 대한 불안, 두려움으로 외적인 요인에 의해 행동하는 성향이 임상실습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Hong 등[2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즉 회복탄력성은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적극적인 대처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하며, 실습만족도, 임상실습수행능력이 높았다[12].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임상실습만족도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10.7%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i[27]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생은 그렇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더 심각한 부적응과 우울을 경험하며 이는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8]. 따라서 타인의 인정에 큰 가치와 기대를 맞추기 보다는 스스로의 가치나 기준을 중심으로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감소시키는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임상실습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 Kim[3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임상기관과 협력하여 실습환경의 개선 및 임상실습지도자의 교육을 통해 학습해야 할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실습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

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회복탄력성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임상실습스트레스에 간호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임상실습만족도가 영향력을 나타내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임상실습교육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습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사정하여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상담적 개입과 교과과정 또는 비교과과정에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어 추후 연구 대상을 지역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완화를 위한 자기표현훈련을 실시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프로그램 등에 개입한 효과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Chang EC, Rand KL.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adjustment: evidence for a specific diathesis-stress mech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00;47:129-137 <https://doi.org/10.1037/0022-0167.47.1.129>
2. Lee MH, Park MS. Sense of coherence and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2):863-872.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2.863>
3. Kim SL, Lee J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 - 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5;11(1):98-106.
4. Park HJ, Jang IS.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16(1):14-23.
5. Chin MH, Nam HA, Kim SH.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an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2015; 10(4):129-138.
6. Park SJ, Choi JY.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e-related fatigu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6(2):456-466.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2.456>.
7. Kim SY.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depression and burnou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Health & Fundamental Medication Science. 2014; 7(3):110-114.
8. Han JS.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7):4459-4466.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459>
9. Tugade MM, Fredrickson BL.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4;86(2):320-333. <http://dx.doi.org/10.1037/0022-3514.86.2.320>
10. Kim JH. Resilience. Seoul: Wisdomhouse.; 2011. 1-268.
11. Lee JK, Kim WJ. The effects of resilience and personality types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1;22(6):100-107. <https://doi.org/10.5762/KAIS.2021.22.6.100>
12. Shin MJ, Chun YL.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17(7):281-304.
-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7.281>.
13. Chung SJ, Yon MH.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reducing the perfectionism.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0;12(2):147-167.
14. Burns DD.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980;14(6): 34-52.
15. Kim YJ. Field research on the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in hospital setting [doctoral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3. p 1-124.
16. Hewitt PL, Flett GL.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1a;60(30):456-470.
17. Ki YH, Seo SG. A review of perfectionism: assessment and treat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8;20(3):581-613.
18. Park SJ, Lee SD.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stress,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resilience on academic burnou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20(12):1245-1264.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2.1245>
19. Jang IS, Park SM.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test anxie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021;28(2):121-129. <https://doi.org/10.5953/JMJH.2021.28.2.121>.
20. Yu HJ. A causal relationship among career stress, academic burnout,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general self-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master's thesis]. Seoul: Seoul University; 2019. p 1-130.
21. Han KY. Multidimensional perfe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ept, measurement, and adaptation[dissertation]. Seoul: Korea University; 1993. p 1-117.
22. Kim HJ. The Influence of self-oriented perfectionism,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life sat-

- 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indecisiveness[*master's thesis*]. Seoul: Myongji University; 2010. p 1-60.
23. Yang YH, Kim EM, Park YM, Lee HY.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5;27(3):337-346.
<http://dx.doi.org/10.7475/kjan.2015.27.3.337>.
 24. Beck DL, Srivastava R.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91;30(3):127-133.
 25. Kwon SJ. The mediating effects of anger-in and anger-out o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2012;16(1):1-16.
<http://dx.doi.org/10.23931/kacp.2021.16.1.1>
 26. Koong HS, Jang TJ, AN N. Influence of uncivil behavior and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on stress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20(15):95-109.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5.95>
 27. Si EA. Adaptive·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ju: Konkuk University. 2017. p 1-64.
 28. Flett L, Besser A, Hewitt PL. Perfectionism, ego defense styles, and depression: A comparison of self-reports versus informant ratings. *Journal of Personality*. 2005;73(5):1355-1396.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5.00352.x>
 29. Hong HS, Kim HY. Effect of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6; 6(2): 221-234.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2.38>
 30. Kim AL. The effect of compassion fatigue, ego resilience, clinical practice self efficacy on stress on clinical practice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17(21):645-663.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21.645>